

하나님인가? mammon인가? (1)

이 정업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동시에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 서는 한 마디로 단호하게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아 두면서 동시에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mammon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마 6:24).

mammon(mammon)은 헬라어로 부나 재물을 뜻하는 말이다. 부나 재물, 돈이 인격체가 아니지만 그것이 마치 신처럼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에 종처럼 끌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mammon,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mammon은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마 6:19)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보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보석을 가리키는가? 예전에는 비단과 같은 옷감과 곡물, 그리고 보석들이 보물이었다. 그러면 요즈음은 어떠한가? 노른자 땅과 고층 건물을 소유한 사람, 수많은 석유가 매장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도 있다. 보물이란 자기가 가장 아끼며 소장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과 자본을 투자하는 대상이다. 건강, 학위, 명예, 권력, 자존심 같은 것이 우리의 보물일 수 있다. 과연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보물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째로,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for yourselves)” 쌓아둔 보물이라는 사실이다. 돈이 보물인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 “나를 위하여” 버는 것이 아닌가? 내가 쓸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나은 편리와 안락함을 누리려고 나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다. 다른 보물도 마찬가지이다. 우선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다. 이처럼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나 자신을 위하여 쌓으며, 투자하고 노력하고 아끼워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런 보물들은 이 땅에서나 보물로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즉,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다. 이런 보물들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면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무리 비싼 옷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이 먹어 곰팡이가 들면 그 옷감은 쓸모가 없다. 아무리 광활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충해가 한 번 슬고 가면 끝장이다. 아무리 수많은 곡물을 비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쥐들이 잡아먹기 시작하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좀이나 부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석들은 도둑들이 훔쳐 간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 대부분이 흙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보석들을 훔쳐갔다고 한다. 이렇게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이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보물은 영원한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남긴 우리 이름을 얼마나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것이며, 그렇게 기억해준들 이미 이 땅에 없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처럼 인간이 추구하고 소유하고 있으며 누리는 그 어떤 보물도 결단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손 털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으려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야 되겠는가!